

연하장 (年賀状)

12월 연말이 다가오면 일본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하장을 써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. 한국에서도 새해에 연하장을 써서 보내긴 하지만 일본만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다.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해 신세졌던 사람, 선생님, 상사, 선배 등 아는 사람에게 쓴다.

일본에서는 연말에 연하장을 써서 25일까지 부치면 1월1일 새해에 도착할 수 있게 시스템화 되어있다.

연하장 배경 그림으로 일반적인 것이 '후지산' '소나무' '매화 꽃' 등이 있는데, 그 외에 '십이지(十二支)'에 나오는 동물들, 예를 들면 그 해가 호랑이 해이면 호랑이를 배경에 그리기도 한다. 요즘은 배경 그림을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많이 활용한다. 예를 들면 그 해 결혼을 했으면 결혼사진을, 아기가 태어났다면 아기 사진을 배경으로 한다.

요즘은 휴대폰 메일이나 E-mail로 연하장을 많이 보내지만 그래도 직접 만든 연하장을 보내야 정성이 느껴진다.

일본에서는 1월1일 아침이 되면 우체통을 열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다.

年賀状によく書く言葉 (연하장에 많이 쓰는 말)

あけまして おめでとう ございま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
謹賀新年 근하신년
きんがしんねん

賀正 하정
がしょう

迎春 영춘
げいしゅん

昨年は いろいろと お世話になりました。 작년은 여러가지 신세를 졌습니다.
さくねん せわ

今年も よろしくおねがいます。 금년도 잘 부탁드립니다.
ことし

今年も よい一年でありますように。 금년도 좋은 1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
ことし いちね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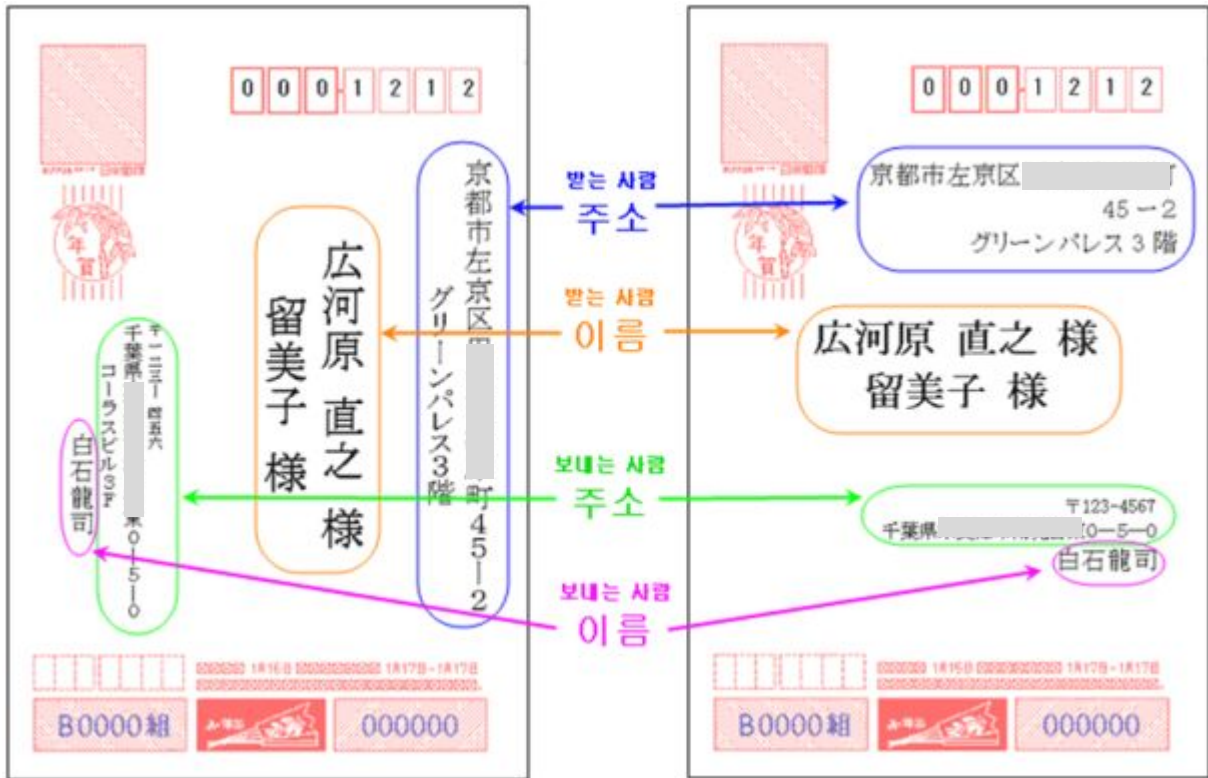
平成26年 元旦 헤세이 26년 원단
へいせい ねん がんたん

2014年 元旦 2014년 원단
ねん がんたん

==== れんしゅうしましょう! 연습합시다! ====

あ	け	ま	し	て	お	め	で	と	う	ご	ざ	い	ま	す
謹	賀	新	年	賀	正	迎	春							
今	年	も	よ	ろ	し	く	お	ね	が	い	し	ま	す	。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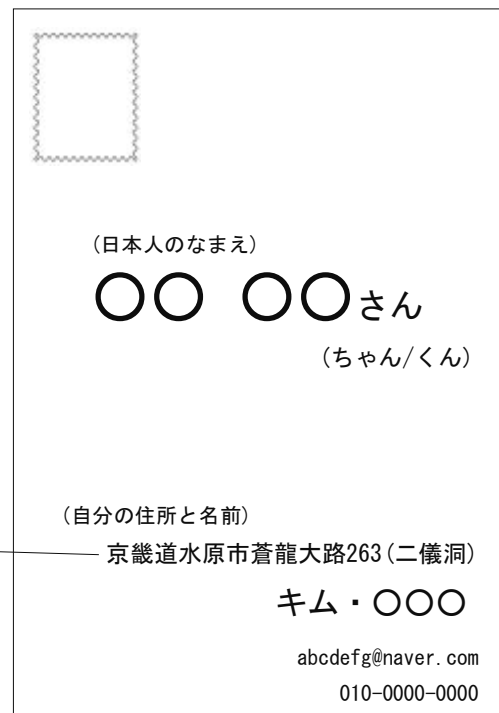
宛名の書き方 (주소, 성명 쓰는 법)



海外から送るとき (해외에서 보낼 때)



交流で直接渡すとき



연하장 그림

えんぎもの
〈縁起物〉



えんぎもの
〈干支〉

